



낮은 곳에서……

1986년 항의 농성 중인 상계동 철거 주민들 속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

- 사진 경향신문

민주화운동의 뿌리 3·1정신

『희망세상』 민주가족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동지적 일체감 속에서 3월의 인사를 드립니다.

3월 1일은 기미 3·1독립선언 90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기에 선열들의 독립투쟁이 인권회복과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뿌리임을 새삼 확인하면서 3·1독립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에 맞서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난 3·1독립 투쟁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의 인권회복,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투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의 연속성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니며 이와 함께 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3·1정신과 4·19혁명이 바로 우리 헌법전문 주제의심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저된 주장과 속임수의 궤변으로 민족사의 기본을 흔드는 사악한 무리들이 대낮에 판을 치고 있는 부끄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삼 선열들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악이란 외부에서도 침입하게 마련이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사실 악은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때문에 인간의 윤리도덕 교육 첫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 수행 첫 단계에서 극기(克己)를 강조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내재된 욕심과 죄를 제어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철저한 수행과 정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위타적 헌신에 있어야 함을 윤리도덕과 또한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독립정신과 4·19혁명정신 그리고 인권과 민주화,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기초 덕목이며 자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정화와 공동체 성화(聖化)는 맞물려 있습니다. 선열과 후손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지 친일매국의 행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매국의 민족반역이라는 대죄가 그 어떤 속죄와 청산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정적 혼란 속에서 단순히 친미 반공이란 명목으로 묵인되고 용납된 미청산이 바로 우리 현대사의 원죄입니다. 원죄는 어떠한 형태로든 꼭 고백과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핵심 과정을 놓쳤습니다. 3·1절 90주년을 맞아 이제라도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참된 고백과 청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형적 기회주의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짓밟고 일인독재를 획책했던 이승만과 그의 졸개들을 건국의 주역이라 주장하는 무리들이 활개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물론 불의한 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평가할 대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강도일 뿐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결코 자선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침략국 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역대 독재정권의 주역들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 영구 집권을 꿈꾸었던 불의한 독재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격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사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기에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 이러한 저의 생각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순국선열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통일의 열망 속에서 숨겨진 희생자들을 기리며 ‘그래도 너는 살아 있지 않느냐? 네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뜻을 계승해 다오.’ 라는 선열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초심을 되새깁니다.

그렇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과정에서 1~2년 또는 5년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일제강점 36년 동안 몸 바쳐 싸워왔던 선열들의 투지와 희생 그리고 그 후 일제 잔재와 독재 과정 60여년을 버티며 민주주의와 통일의 꿈을 실현키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선배 동지들의 열정을 재현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1절 노래의 끝 대목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희망세상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02 책머리에

민주화운동의 뿌리 3·1정신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촛불항쟁을 닮은 시민혁명의 첫 효시
마산 3·15 의거 현장을 찾아서 | 김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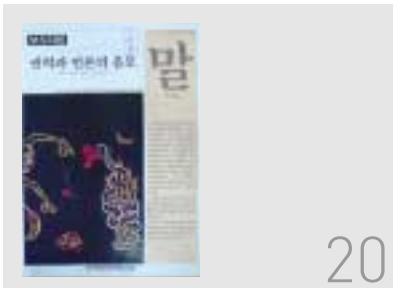


14 특별기고

그래도 희망을 묻는다,
팔레스타인 | 미니

20 사료이야기

「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합주곡 | 어수갑



24 사업회 소식

민주화운동 사료정보콘텐츠 서비스 시행
민주화 인사들, 김수환 추기경 추도미사 참석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김종철,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홍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8 문화초대석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세상과 소통을 꿈꾸다 | 김미영



34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그 시절의 웨드라!
우린 죽어도 좋았다 | 김학민



38 그곳에 희망이 있다

또 하나의 작은학교
성남 수진동 푸른학교 | 양지연



42 게시판

44 독자마당